교단의 벽 넘어 농어촌교회에 새 희망 심다

한성연, 부여 은산제일교회 제6호 레노베이션 사업 완료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이기용 목사 · 이하 한성연)가 농어촌교회 레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지역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성연은 지난 10월 27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제일교회(담임 김요한 목사 · 기성)에서 제6호 레노베이션 사업 완료에 따른 감사예배와 현판 제막식을 갖고, 교단 간 연합과 협력을 통한 성결 복음 확장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은산제일교회는 2004년 설립 이후 건물 노후화와 누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성연의 지원과 성도들의 헌신, 여러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의 정성이 모아져 약 2개월에 걸쳐 96평 규모의 교회 내 · 외부를 전면 새 단장했다.

총공사비 1억 9,000만 원 가운데 한성연이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교회 성도들이 건축헌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공사비에도 여러 교회와 개인들의 후원이 힘을 보탰다. 이날 감사예배는 기성 총무 송우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기성 부총회장 분형식 장로의 기도, 본 교단 총회 서기 강명국 목사의 성경봉독, 충남지방회 목사 · 사모 중창단의 특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성연 대표회장 이기용 목사는 '혁신의 답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와 교회 부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성령이 함께하시면 내가 있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며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교회 리모델링과 재활성화 사업을 소개했다.

나성 총회감독 최형영 목사는 축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은산제일교회를 축하하고, 성결교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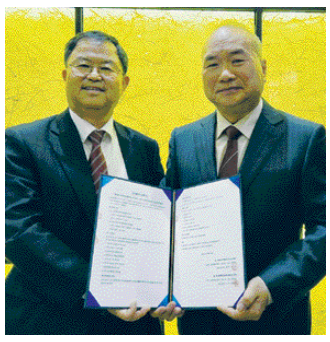
감사예배는 본 교단 총회장 이종만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으며, 이어진 현판 제막식에서는 나성 총무 최절 목사의 기도 후 참석자들이 한성연 현판을 공개하며 사업의 결실을 축하했다.

한편, 한성연의 농어촌교회 레노베이션 사업은 2022년 나성 제주희망교회를 시작으로 2023년 본 교단 수암교회, 2024년 기성 상주 상산교회와 나성 동부산교회, 2025년 본 교단 성흥교회에 이어 올해 은산제일교회까지 총 6개 교회에서 진행됐다.

한성연의 레노베이션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농어촌교회의 예배 환경을 회복하고 지역 복음화 사역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교단 간 연합을 통한 농어촌교회 지원과 성결복음 확산을 위한 사역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지재단 · 성결교육진흥원, 성결교육의 미래 위해 맞손

목회자 · 평신도 역량 강화와 다음 세대 신앙 계승 협력키로



총회 유지재단(이사장 류제곤 목사)과 총회 성결교육진흥원(원장 노윤식 목사)이 성결교육의 활성화와 교단의 미래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10월 26일 서울 경복궁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결교육의 발전과 교단 교육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교단의 교육적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결교회의 신학과 신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변화하는 목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양 기관은 교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 사역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성결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결교육진흥원은 앞으로 성결교회의 신학과 역사, 신앙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목회 현장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고, 성결의 복음과 신앙 유산을 계승하는 교육 사역에도 힘쓸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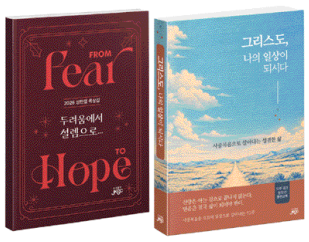
총회 유지재단과 성결교육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단의 교육적 자산을 활용한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등 성결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성결교육진흥원 원장 노윤식 목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성결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교단의 소중한 신앙 유산을 계승하며 미래 목회와 교육을 준비하는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단의 교육 사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목회자와 평신도는 물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성결의 신앙과 가치를 전수하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양 기관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성결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적 기반을 얼마나 확장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국, 2026년 성탄절 묵상집과 2027년 공과 동시 발간

말씀 묵상부터 신앙의 생활화까지… 성도들 영적 성장과 성결한 삶 초점



총회 교육국(국장 류형창 목사)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사중복음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교재 두 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총회 교육국은 최근 2026년 성탄절 묵상집 『두려움에서 설렘으로』와 2027년 공과 『그리스도, 나의 일상이 되시다』를 함께 발간하고,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는 성경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찰과 사중복음의 생활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경건생활부터 한 해 동안 이어지는 신앙교육까지 연계해 성도들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성탄절 묵상집 『두려움에서 설렘으로』는 11월 29일부터 성탄절인 12월 25일까지 4주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소식에 응답한 사람들의 믿음을 묵상하도록 구성됐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믿음과 소망의 설렘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평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주일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살펴보며, 성탄절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묵상을 마무리한다.

매일 '성경 본문-묵상 글-적용 질문-한 줄 기도' 순서로 구성해 개인 경건생활은 물론 가정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성탄절 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간된 2027년 공과 『그리스도, 나의 일상이 되시다』는 '사중복음으로 살아내는 성결한 삶'을 부제로, 교단의 핵심 신앙인 사중복음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6년 공과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신앙의 본질을 다뤘다면, 2027년 공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무게를 두고 믿음의 고백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총 52주 과정으로 구성된 공과는 1분기 '성결', 2분기 '중생', 3분기 '신유', 4분기 '재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성결에서는 거룩한 생활습관을, 중생에서는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신유에서는 몸과 마음의 전인적 회복을, 재림에서는 소망을 증언하는 삶을 다룬다. 또한 언어와 시간, 물질을 사용하는 일상의 습관부터 가정과 일터에서의 인간관계, 몸과 마음의 회복, 지역사회를 향한 선교적 실천까지 폭넓게 다루며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강조했다. 특히 주일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집필에는 김기웅 · 전선택 · 김일선 · 박병두 목사가 참여했다.

성탄절 묵상집은 6천 원, 2027년 공과는 1만 1천 원이며, 구입 및 자세한 사항은 총회 교육국(070-7132-0020~1)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정



총회장
이종만 목사

11. 2	기성광주지방회대회 참석
5	총회 임원회의
7	전남광주지방회 장로회 창립종회
9	한성연목회자축구대회
	예성군선교사수련회
10	실행위원회
12	한성연 사회복지포럼
12~13	목사고시
15	추수감사주일
19	성결대 CEO초청 세미나
20	한교총회의



▷1면에 이어

개회예배와 목사안수식에 이어 신장호 목사(서부지방회장)와 서부지방회 목회자 사모들로 구성된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 인도와 기도가 이어졌고, 주강사로 총회에 참석한 송덕준 목사(독일교회 원로목사)가 '오직예수'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인도하여 참석한 미주총회 대의원들을 격려하고 도전했다.

총회 둘째 날인 10월 20일에 정기총회 회무가 이어졌다. 22회기에 구성된 현장개정위원들에 의해 23회기 총회에 상정되었으나 24회기 총회에서 벽두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던 헌장의 전면 개정안을 벽두안으로 처리하고자 표결하였으나 부결 되었다.

이어서 총회장에 이윤수 목사(비전선교교회), 부총회장에 강양규 목사(세빛성결교회), 서기 이윤원 목사(밴쿠버평화교회), 부서기 이승빈 목사(미들타운한인교회), 회계 정신구 목사(성민교회), 부회계 차봉기 목사(예수천국교회) 회록서기 손민호 목사(좋은이웃교회)를 24회기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하였다.

미국서부지방회에서 청원한 목회자와 장로의 정년 연장을 위한 헌장개정청원은 법제부와 대의원들의 1년의 심도 있는 상황별 연구와 법제부의 심의를 거쳐 다음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다루기로 결정했다.

정기총회 회부가 끝이 난후, 후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총회를 방문한 송덕준 원로목사의 주제강의와 대담회를 통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미주성결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한 깊은 대담들이 이어졌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짐하고 도전받는 시간들을 가졌다. 이어서 폐회 예배를 마치고 24회기 미주예성총회를 성료하였다.

